

식은땀이 흘러 이불과 요를 흠뻑 적셨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⑤ 반야다라(般若多羅) 나타나시다

왕궁으로 돌아온 보리다라는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그는 경전조차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달빛 아래서 무술연마도 하고 싶지 않았다. 축발을 끄고 화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다. 그는 생각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시적인 방편으로 왕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궁성 안의 호화로운 생활이 스스로를 옥죄었다. 게다가 부왕과 모후에 대한 괴로운 심정도 마음을 짓눌렀다. 그럴수록 그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야만 한다고 다짐했다.

이불 속에 반듯이 누운 보리다라는 어느덧 명상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갑자기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하늘을 진동하면서 한 줄기 붉은 빛이 그를 엄습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무너져 내린 왕궁에서 불이 활활 타올랐다. 타다 남은 가재도구가 뒹굴고 궁 안은 온통 초토화되어 있었다. 도처에 시체가 어지러이 널려 있고 피비린내와 시체 타는 냄새가 코끝에서 진동했다. 짐작컨대 이 나라가 외국의 침략으로 겁난을 당하는 모양이었다.

"안보르다. 업보!"
보리다라는 명상 속에서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두 눈을 감은 채 두 손 모아 합장했다. 잔인한 살인, 파괴, 피 부리는 겁난, 인과 응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윤회의 굴레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렇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겁 이전에 위대한 자비의 원력(願力)을 인식하고 지방세계를 교화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행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성(城)의 망루에 올랐다. 고색천연한 왕도(王都)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싶기도 했거니와 세 왕자와 이곳에서 아침을 먹고 싶었기 때문이다. 국왕이 세 왕자와 함께 막 자리에 앉자 내관 하나가 바쁜 걸음으로 달려왔다.
"대왕께 아뢰입니다. 성문 앞에 웬 노스님이 오셔서 빗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내관이 부복해서 고하는 말에 국왕은 귀를 의심했다. 이른 아침부터 노스님이 찾아 온 까닭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순간 국왕은 길조로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노스님을 즉시 이곳으로 모셔라."

잠시 후 내관이 스님을 안내했다. 스님은 키가 8척이나 되는 장신이었다. 백발이 성성한데도 동인(童顏)이었다. 붉은 눈썹에 맑은 눈이 충충히 빛났다. 어디로 보나 도굴선공(道得仙風)이 풍겼다. 손에 불자(拂子)를 잡은 채 국왕

향지국에 온 8척의 노스님 "빈승이 바로 천축 27대조 정해진 거처는 없습니다"

을 향해 합장하면서 말했다.
"대왕을 처음 뵙습니다. 아미타불."
향지국왕은 불교를 존송하는 임금이었다. 황망히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내려가 스님에게 각듯이 예를 표했다.
"노사부께서는 몸을 펴십시오. 그리고 이리 앉으십시오."
노승은 사양하지 않았다. 곧 국왕과 나란히 자리에서 앉았다. 국왕은 노스님을 훑듯 보면서 고승(高僧)이 확실하다고 짐작했다. 노사부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성지를 내려 보물을 시주하라고 했다. 내관은 즉시 은쟁반에 금은보화를 달아와 정중하게 노승의 앞에 바쳤다. 향지국왕은 쟁반 위에 놓인 보물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희 나라가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보잘 것 없는 보물이지만 등에 넣을 기를값으로나마 보태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꺼이 받아 주십시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지었다. 쟁반을 받아서 옆에 있는 책상 위에 놓고 몸을 일으켜 합장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
"감히 대왕의 시주를 받자와 빈승은 실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말을 마치자 노승은 눈을 들어 옆에 앉아 있는 세 왕자를 차례로 찬찬히 들여보는 것이었다. 무슨 사연이 담겨있는 듯 싶은 그런 눈길이었다. 국왕은 세 왕자로 하여금 노승에게 인사

를 드리도록 했다. 그런 다음 노승에게 물었다.
"노사부께서는 어느 절에 계시는지요? 그리고 법호는..."
노승은 국왕이 채 말도 마치기 전에 불자를 한번 쓸어 내리고는 합장을 하면서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빈승이 바로 천축 27대조인 반야다라(般若多羅)입니다. 정해진 거처는 없습니다. 대왕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시고 공덕이 무량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흠모하여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과연 공연한 소문이 아니었군요."

납죽 얹드려 큰절하고

향지국왕은 깜짝 놀랐다. 공수(拱手)를 하고 읊을 하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제가 눈 쓴 장님처럼 큰스님을 몰라보았습니다. 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노승은 즉시 두 손으로 향지국왕을 부축했다.
"대왕께서 이토록 지나친 예로 대해 주시니 빈승은 황송할 뿐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제자리에 좌정했다. 국왕은 더욱 예의를 갖추어 조사(祖師)를 극진히 대접했다. 세 왕자도 기쁜 기색으로 친히 시중을 들었다.
이 노승이 진정 서천(西天)의 27대조인 반야다라란 말인가? 왕자들은 생각할수록 꿈만 같았다. 반야다라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원래 동쪽 천축의 바라문 가문의 자제였다. 그러나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잃어 성씨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더군다나 이름조차 지어 받은 일이 없었다. 어느 정도 자란 다음 스스로 이름을 지어 영락(纒絡)



石正스님의 노염달마도(수묵 담채, 1977년작)

◇석정스님의 노염달마도(수묵 담채, 1977년작).

게 고했다.
"아버님, 이 사람은 일반의 속된 무리가 아닙니다. 대세지보리(大勢至菩薩)입니다."
천덕국 왕의 충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 진정 사실이나? 몇 번이나 되물었다."
보여밀다존자는 내친 김에 모든 것을 부왕에게 알려 주었다. 앞에 있는 젊은 보살에 뒤이어 또 한 사람의 큰 보살이 나올 것이며, 이들 중 한 사람은 남천축에 또 한 사람은 동쪽 땅에 큰 인연이 있다고 예언했다. 이 말을 들은 국왕은 황급히 수레에서 내렸다. 친히 영락동자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수레 위로 올라왔다.

쟁반에 담긴 보물

보여밀다는 옛 인연을 말하면서 영락의 이름을 반야다라로 지어 주었다. 그에게 점두(點頭)하면서 빗을 전수했다.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고 27대의 조위(祖位)를 잇게 한 셈이다. 보여밀다는 이어서 부왕에게 정중하게 작별의 인사를 고했다. 그리곤 자기가 앉았던 자리로 돌아가 결가부좌 자세로 입적하여 스스로 불이 되어 활활 타 버렸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반야다라의 이름은 천하를 뒤덮기 시작했다. 남천축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반야다라가 이번에 향지국을 찾은 까닭은 두

가지 점에 연유했다. 하나는 향지국왕이 불교를 숭상하면서 공양과 시주에 정성을 다한다는 소문을 듣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 나라의 세 왕자가 모두 경전에 통달했을 뿐더러 특히 셋째 왕자가 출중하다는 소문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직접 향지국왕을 만나서 불심도 시험해 보고 세 왕자의 불연(佛緣)도 알아보고 싶은 것이 반야다라의 속마음이었다.
반야다라와 향지국왕 그리고 세 왕자는 주인과 손님이라는 위치를 잊은 채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반야다라는 일부러 쟁반에 담긴 보물을 세 왕자 앞에 내놓으면서 웃음짓는 얼굴로 말했다.
"세 분 왕자께 물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왕께서 시주하신 이 보물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입니다. 특히 한 가운데 있는 동근 보주(寶珠)는 천하에 둘도 없는 보물이 아닙니까. 이것을 과연 빈승이 받아도 되겠습니까?"
첫째 왕자 월정다라와 둘째 왕자 공덕다라는 합장하면서 공손하게 대답했다.
"대사님께 아뢰입니다. 이 보물은 말씀하신 대로 천하의 귀물이 분명합니다. 동근 보주는 칠보의 으뜸으로 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런 보물은 조사님의 도력이 아니면 어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향지국왕은 얼굴 가득히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왕자의 대답이 도리에 맞다고 생각하면서 흐뭇해했다.

보리다라 우울한 나날

보리다라는 한 줄기 썩한 냉기에 자기도 모르게 온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퍼뜩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벌써 한밤중인 듯 싶었다. 창 밖엔 명상 속에서 본 것처럼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몸에 선 스은땀이 흘러 이불과 요를 흠뻑 적셨다. 보리다라의 마음은 산란스러웠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밤이 깊었지만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그의 눈앞엔 명상 속에서 본 광경과 오늘 낮에 부왕이 하신 말씀이 중복된 화상으로 어른거렸다. 그는 고개를 힘차게 흔들면서 환영(幻影)을 쫓았다.
"이, 이것이 일장중동이로구나!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는 속으로 뇌개렸다.
새벽이 밝았다. 왕궁 안의 누각과 집들이 동트는 햇살에 비쳐 막 솟아올랐다. 밤새 내린 빗방울은 건물 사이 처마 겹겹에서 영롱한 빛을 반사했다. 향지국 도성 안의 잠입함과 아름다움이 한껏 돋보였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향지국왕은 기분이 매우 좋았다. 문안드리러 온 세 왕자와 내관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공전을 나갔다. 한참 걸어서 옛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나 쓰는 흉내만 낸 돌침대가 아닙니다. 최고급 원목, 최고의 기능 **리빙스톤 돌침대**는 선택받은 귀하만의 것입니다.

- ▶ 광광 뛰면서 온돌방처럼 쓰는 리빙스톤 돌침대!!
-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시겠습니까?
- ▶ 좋은 잠자리의 잠이 보약입니다.

◆ 침대에 주사를 놓는 다구요? ◆ 평도가, 인자, 일체로기, 습기에서 완전 예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용 매트다구요? ◆ 온도는 자유롭게 4계절용 돌침대 ◆ 불매에서 침착이신, 몸이온이 움직이지 매기는 느낌이 없고, 허수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리빙스톤 돌침대의 효능...

- ◆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 ◆ 초정파 및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온전함을 풀어줍니다.
-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백을 차단하였습니다.
-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줄 수 있습니다.
- ◆ 한달 전기료는 1200원 인위(1월 10시간 사용 기준)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 ◆ 교육사제, 난병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특허받은 전자파 완전 제거장치 침대에 설치

아침건강 - 베게가 좌우합니다!
뇌 혈액순환 촉진으로 머리를 맑게하는 **속속베게**

- ▶ 자고 나면 머리가 멍하고 어깨가 바뀐 느낌? 베게를 바꾸십시오.
- ▶ 통풍이 잘되고 세척도 간편한 속속베게

35,000 → 12,000원

※ 단체 주문 환영 ※ 침대 3대 이상 단체 구입시 특별 할인 가격 우대! ☎ (02) 424-9427 / 2203-7821